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것이 오는 이치는 없어요, 절대로

☞ 19면에서 계속

도 있거든요. '아, 이 집에 오니까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고 좋구나. 그러니까 내 집을 만들어야겠다.' 이런다면 정신 분열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집이 하나니까 주인도 하나여야 되는데, 딴 주인이 거기서 산다고 하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자기 주인이 자기 심부름하는 자기 시자를 자꾸 리드해 나가야 될 텐데, 주인이 또 하나 생겨 가지곤 몸을 자꾸 끌고 다닌단 말입니다. 먹지 말라, 가지 말라, 뭐, 갖은 참견 다 하고 말입니다. 그 영계성이란 것이 이런 도리를 알아서 죽은 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구잡이죠. 사람을 이리로 가랬다, 저리로 가랬다, 먹지 말랬다, 나가지 말랬다 온통 야단법석을 하니까 이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심부름꾼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신 분열이다 미쳤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안에서 주인이 그렇게 살아서 그런 것인데 병원에 데리고 가 봤던들 뭘 하며, 약을 먹여 봤던들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렇게 말하죠. 물방울 두 개를 하나에다가 붙이면은 물방울 하나가 되지 둘이 되지 않는다. 오만(五萬)의 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로 해 놓으면 그냥 영이지, 오만 개의 영이 숫자대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영 자체도 공했다고 했으니까 주인에다가 모든 걸 맡기고 하나로 뭉쳐서, 한 사람이 다스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신 분열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인과성이다 하는 것도, 부처님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인연에 따라서 그게 간단치만은 않은 겁니다. 많이 들어서 다 아시는 얘기죠. 시자를 데리고 가시다가, 종이 떨어진 거를 주워 보라고 하셔서 그걸 주우니까 "그 냄새가 어떻더냐?" 하고 물으셔서 "향 쌌던 종이입니다." 했습니다. 또 가다가 새끼오락지 떨어진 거를 주워 보라고 하셨는데 그건 비린내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나거든요. "그건 무슨 냄새가 나느냐?" "비린내, 썩은 내가 납니다." "그러면 한번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라. 너희들도 살아나감에 있어 이 향을 쌌던 종이를 따르려느냐, 썩은 생선 묶었던 새끼오락지를 따라가려느냐?" 하셨던 거죠.

사람이라면 보고 듣고 해서 이게 옳다 그르다 하는 거를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본래 알고 있는 겁니다. 몰라서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본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알고 있죠. 그런데 알면서도 썩은 새끼오락지를 따라간다면 그게 악종(惡種)의 인연이 되는 겁니다, 깡패 소굴에 들어가면은 벗어날 길이 없듯이. 또 향을 쌌던 종이, 향내 나는 향수라고 그러죠. '향수의 바다' 이러죠. 우리 몸에도 물이 있지만, 향수해(香水海)같이 우리가 먹고 쓰고 하는 것이 전체 향수라면, 향수를 따르는 향수라면 얼마나 그게 즐겁고 좋겠습니까? 그래서 인과라는 자체가 바로, 악종의 인연이냐 선종의 인연이냐 하는 겁니다.

그럼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그 속에서 악종의 인연을 많이 맺은 사람들은 지금 자식들로 인해서 속도 썩거니와 불구인도 나오고 별의별 일이 다 나오는데, 이 인과성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테냐는 얘깁니다. 선종으로 인연을 많이 맺은 사람들은 선종을 낳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극진하고 말을 잘 듣고, 그 모든 것을 속 안 썩이고, 그냥 수순하게 살아 주는 그런 가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누가 갖다 준 게 아니라 바로 내 속에 그렇게 주둔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그렇게 주둔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과성에 연결이 돼서, 고리가 고리를 물고 나오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도 고리가 고리를 물고 나오는 겁니다, 종자가 그 종자니까. 그러니까 선종이다 악종이다 하는 인연을 자꾸 만든다면 아니 되죠, 그거는.

유전성이라는 문제도 살생으로 인해서 많이 연결되니까 구분지 삼은 살생이 원인이죠. 그러나 이 유전이라는 것은, 만약에 아버지가 속병을 앓았다 이러면 그것을 대치해서 자식이 또 속병을 앓는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그렇게 남을 애타게 꼭 그 값어치대로 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부모가 치르고, 그 대가를 또 자식이 치르게 내려간단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개미가 개미를 낳지 딴 종자를 낳을 리가 없다는 얘기죠. 소가 소를 낳고, 말이 말을 낳고, 토끼가 토끼를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는 거지 딴 거 낳는 것을 못 봤어요. 돌연변이가 있다면 딴 거를 낳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가 내려오면서, 지금 백팔 염주에 염주알을 꿰어 놓은 것처럼 자기의 그 종자가 종자대로 그렇게 꿰여 있죠. 이 세상 이치도 우주 전체를 염주알 꿰 놓은 것처럼 돼 있어서 우리가 그 염주 바깥으로는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전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유전성이든지 영계성이든지 세균성이든지 업보성이든지 인과성이든지 이 공부를 안 하면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업보성' 하면 오간지옥성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차원이 낮고 낮아지면 인간에서 좌천이 되는 거죠. 인간에서 좌천이 돼서 기어 다니는 벌레로 땅속에서 사는 것이 바로 오간지옥이에요. 무당들이 칼을 들고 바가지에서 죽 쑤은 것을 던지면서 하는 소리 들어 보셨어요? "이걸 먹고 싹 물러나라. 그렇게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내, 밥내도 못 맡게 지옥성에 다 넣는다." 하하하. 이런 말이 있죠. 그런 거와 같이 이거는 인간이 돼야 국내, 밥내를 맡지 어떻게 국내, 밥내를 맡습니까, 땅속에서 사는 벌레가? 만약에 땅속으로 다니고 굴속에서 살고 그러는 살모사나 그 뭐, 뱀 종류라든가 벌레 종류라든가 이런 거라면 그냥 국내, 밥내도 못 맡죠. 그게 바로 오간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결정코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고, 칼로 썰어도 썰어지지 않고, 하하하, 아주 굳세고 아주 늠름하고 여여한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이름이 부처라 이런 거죠. 그러니 여러분 속에 모두 주둔해 있는 거를 어디 가서 빌고 어디 가서 찾습니까? 어디 가서 그걸 해결해 달라고 합니까?

오신통을 컴퓨터라고 해도 좋다고 내가 항상 말하죠. 앞서 입력이 돼서,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주둔해 있으니, 거기서 나오는 대로 다시 입력해라 이 소립니다. 그래야만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지는 겁니다. 업보성이라든가 영계성, 유전성, 세균성, 인과성 이 자체가 몽땅 차례차례로 나오는 것을 내가 닥치는 대로 거기다 놓으니까 차례차례로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서 나가면 자손 대에도 그렇고, 다시 바뀌지는 거죠, 아주 그냥. 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바뀌지는 겁니다, 그대로 그냥.

삶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져요

질문 요즘 지구 온난화로 인한 온갖 자연재해 등으로 수없는 사람들이 허무하게 목숨을 잃어 가는 현실을 볼 때 사는 것이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것은 비교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해 드렸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지금 물건들이 전부, 그 종이나 비품이 많이 나간다고 합시다. 헌쇠든지 넝마든지 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죠. 종이도 그렇고. 그것이 재생돼서 나가죠? 많은 게 재생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금도 반지가 됐다가 또 가서 팔려면 금방으로 가져갑니다, 금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도 재생이 돼서 다시 나옵니다. 귀고리도 해서 나오고 팔찌로도 해서 나오고 반지로도 나오고, 이렇게 다른 물건이 돼서 다른 이름이 돼 가지고 나오죠. 곧 다른 이름이 돼 가지고 다른 물건이 돼 가지고 나올 동안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에서 인제 수술을 할 때도 가만히 보면 자기가 자기 수술하는 걸 보고 있을 때가 있죠? 그게 죽는 게 아닙니다. 재생돼서 나오는 것을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서도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최고의 바로 고등 인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고의 인간이죠.

그리고 영혼이라는 말 자체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대롭니다. 그 생명 자체의 근본은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습니다. 의식 자체는 바로 영혼이라고도 하고 혼백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식 자체입니다. 불성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불성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의식 자체는 이랬다저랬다 할 수 있지만, 즉 말하자면 우리가 기름 또는 윤전수, 차,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도 허망하지 않다 하는 것이 옷이 허니까 아무 데나 앉아도 그냥 괜찮거든요. 그게 늙고 그랬다고 해서 이 옷이 헐었다고 그러는데요, 아무 데나 앉아도 그냥 뭐, 흙 묻었다고 걱정할 거 없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새 옷 입는 거보다 헌 옷 입는 게 아주 좋죠. 그래서 아무리 노인네가 늙었어도 허무하지 않은 겁니다. 늙었다는 것이 이게 옷이 헐었다는 얘긴데 이왕 늙어 버렸으니 아무 데나 앉은들 누가 어떠랴 이러고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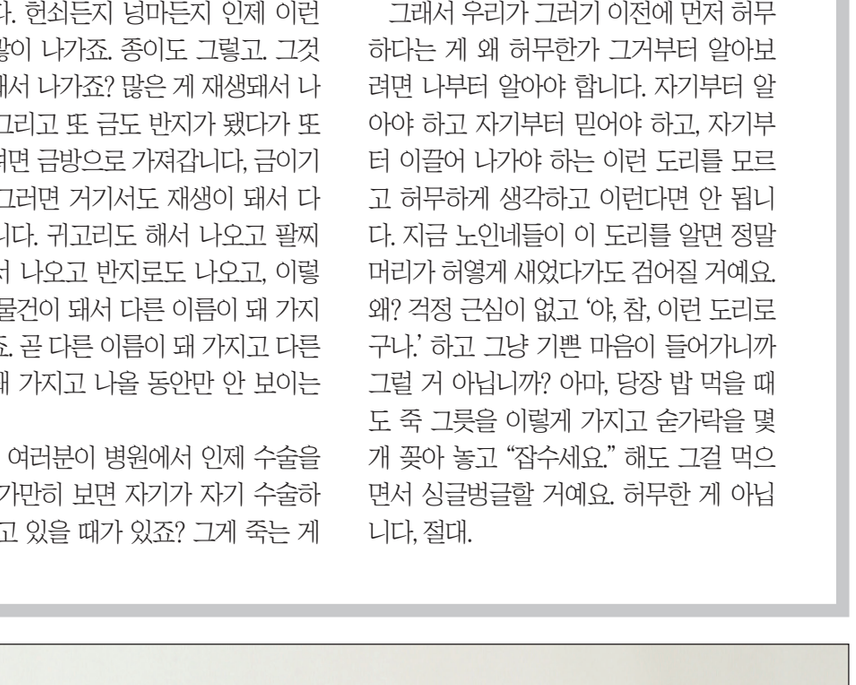
참 그 마음이 지혜롭고 크면 이 우주 안에 그 마음이 꽉 찼는데 뭐가 부러울 게 있으리까. 그러니 그러한 마음을 가진 분은 밥 굶을 필요도 없고 용돈 안 줄 사람도 없어요,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허무하게 살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해 보십시오. 그래서 늙어지면 뭐, 그, 허무하다고 그러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요즘 허무하다는 소리 더 잘해요. 노인네들은 외려 덜합니다. 어째 거꾸로 됐는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이전에 먼저 허무하다는 게 왜 허무한가 그거부터 알아보려면 나부터 알아야 합니다. 자기부터 알아야 하고 자기부터 믿어야 하고, 자기부터 이끌어 나가야 하는 이런 도리를 모르고 허무하게 생각하고 이런다면 안 됩니다. 지금 노인네들이 이 도리를 알면 정말 머리가 허옇게 새었다가도 검어질 거예요. 왜? 걱정 근심이 없고 '야, 참, 이런 도리로구나.' 하고 그냥 기쁜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아마, 당장 밥 먹을 때도 죽 그릇을 이렇게 가지고 숟가락을 몇 개 꽂아 놓고 "잡수세요." 해도 그걸 먹으면서 싱글벙글할 거예요. 허무한 게 아닙니다, 절대.

유전성이든지 영계성이든지 세균성이든지
업보성이든지 인과성이든지
이 공부를 안 하면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